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선순환체계 구축



투데이 뉴스

전남 먹거리 마스터 플랜 연구용역 과제 첫 회의

도, 전남 TF 가동...농산물 수급·가격 등 논의

전남도가 지역 먹거리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산·가공·유통·소비체계 구축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남도 먹거리 마스터플랜 테스크포스(TF)가 연구용역 과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 먹거리 마스터플랜은 정부의 푸드 플랜 정책에 맞춰 지역 생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자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중소

농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환경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실행 계획이다.

TF는 생산유통, 안전·건강 먹거리, 먹거리 복지, 먹거리 자원순환의 4개 분과로 운영된다.

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복지시설·가공유통조직·행정·교육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참여한다.
공공 급식의 안정성 확보, 친환경 농

산물의 선순환체계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한 먹거리 취약계층 발굴, 친환경 생산 자재 및 가축분뇨 자원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등 관련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다.

첫 회의에서는 세부 연구용역 과제로 지역 먹거리 현황 분석, 서울-전남-광주 간 친환경 급식 자재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 전남 주요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역 농산물 생산·가공·

유통·소비의 선순환을 포함한 광역단위 '전남 먹거리 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영양 개선·안전관리·식품 복지·환경 부담 완화까지 종합 전략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김영선 전남 먹거리 마스터플랜 TF 단장은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의 공급과 소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표"라고 설명했다. /정근산 기자

청년일자리 지원 종합안내 발간

광주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지원 시책을 모은 2019 청년일자리지원정책 종합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2019 청년일자리지원정책 종합안내'는 정부와 광주시의 청년 일자리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30개 정책을 구직, 채용, 근무, 창업 등 4개 단계로 나뉘 ▲구직 단계에서는 광주 청년 교통수당 등 9개 사업 ▲채용단계에서는 광주 청년 일 경험 드림 사업 등 6개 사업 ▲근속단계에서는 청년 13(일+삶) 통장 드림 사업 등 5개 사업 ▲창업단계에서는 청년 예비 창업가 창업 자금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시는 책자를 청년 관련 기관, 단체, 대학과 공방, 버스터미널, 송정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배포할 예정이며,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세계수영대회 감염병 대응 강화

광주시가 1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감염병 대응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보건환경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세계수영대회에 대비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육했다. 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대응 요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세계수영대회 기간 발생 가능한 ▲메르스, 홍역 등 해외유입 감염병 대응 체계 ▲식중독 등 수인성 감염병 집단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관리 절차 ▲법정 감염병 진단검사 등을 전달했다. 또 지난해 감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세계수영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남 위험시설 6,300곳 '안전 대진단'

4월 19일까지 7개 분야 47개 시설물 대상

전남도가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진단 기간은 오는 4월 19일까지며 안전관리가 취약한 위험시설 7개 분야 47개 시설물 6,292곳이 점검 대상이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숙박시설 256곳, 낚시어선 247척, 식품제조·판매업체 191곳, 전통시장 77곳 등이 포함됐다.

시설물 관리자가 시행하는 자체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도와 시·군의 안전관리자문단·민간전문가·관리주체·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시설·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로 실시한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면 안전간판 설치 등 긴급 안전

조치와 함께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이다. 또 안전점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관리기관과 관리 주체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점검 이력을 관리해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안전신고 포상금제를 활용해 위험시설 신고를 받는 등 주민의 안전점검 참여를 유도해 취약·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도 한다.

최종선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17일 "참여형·책임형 대진단 추진을 통해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행정력도 단순 시설 점검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안전의식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15일 오후 2019년 자치구 순방 두번째 방문지인 광산구청을 찾아 주민들과 민선7기 시정방향을 공유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시장, 광산구서 주민과의 대화

주민 편의에 방법용 CCTV 설치 등 약속

광주시가 광산구와 함께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15일)은 '주민과의 대화'를 갖고 광산구청 보고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광산구는 구정현황 보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주치의센터 지원 ▲시립 수완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 2건을 건의했다.

광산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

농촌지역 방법용 CCTV설치 ▲송산교 보수·보강공사 사업비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 분점 신설 ▲정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마련 ▲비아동성당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신창동 풍영정길 보도설치 등 6건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농촌지역 방법용 CCTV설치 ▲송산교 보수·보강공사 ▲비아동성당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신창동 풍영정길 보도설치에 대해

시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립 수완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광주신용보증재단 분점 신설 ▲정소차량 차고지 대체부지 마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광산구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지자체 차원의 확산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사업) 모델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여건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주치의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광주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전기자동차 1007대 보급...18일부터 접수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확대를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1,007대와 수소 346대 등 1,353대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수소전기차는 수소충전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완료되는 시점에 추후 공고한다.

광주시가 올해 보급하는 친환경 자동차는 지난 5년 동안 보급한 친환경 자동차 1,656대(전기 1,449대, 수소 207대)의 81% 수준이다. 이는 친환경 자동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시가 시민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결과다.

특히, 시가 전기자동차 소유주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속충전기 118기를 설치했으며, 올해도 51개를 추가 설치한다.

전기자동차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며, 출고 순으로 보급한다. 보조금 지원 자격을 갖춘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법인 포함)는 원

칙적으로 1대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최근 2년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국비 420~900만원, 시비 250~600만원으로 총 670~1,500만원이 지원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8일부터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기자동차 민간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시설소유자나 관리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전화상담실(1661-9408)에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무료로 쏜다

54개 노선 294대 설치...7월까지 전체 확대

광주시는 관내 시내버스 294대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지난 15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내버스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구축 사업은 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국비와 시비 일대일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2억1,500만 원을 투입

해 1·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사업으로 15일부터 시내버스 54개 노선 중 294대에 우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와 시내버스 운수조합은 협의를 거쳐 일부 외곽노선을 포함해 버스 이용자가 많고 시범운영이 필요한 54개 노선을 선정했다. 2차 사업은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오는 6월까지 나머지 750대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모

든 시내버스 1,044대에 설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공공와이파이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통신사와 관계없이 휴대전화와 이파이 목록을 검색한 후 'Public WiFi @BUS'를 선택하면 별도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7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맞아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접속 초기화면을 활용한 대회 홍보, 공공와이파이 접속 정보를 활용한 버스 이용 패턴 분석, 유동인구 분석 등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정보수집에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황애란 기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당신의 특별한 날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올라타이 호텔 배 웨딩홀

주 웨딩시대

0621 385-7000

광주광역시 서구 삼천리 55 (신정동 1188)